

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
제2외국어/한문영역 프랑스어 I 정답 및 해설

01. ② 02. ① 03. ⑤ 04. ⑤ 05. ② 06. ④ 07. ③ 08. ⑤ 09. ④ 10. ④
11. ② 12. ④ 13. ① 14. ② 15. ④ 16. ③ 17. ⑤ 18. ⑤ 19. ① 20. ②
21. ③ 22. ③ 23. ⑤ 24. ③ 25. ② 26. ① 27. ① 28. ③ 29. ① 30. ②

[1~5] 발음 및 어휘

1. 철자 'c'의 발음

Vivre à la campagne[kāpan], c'est formidable !
시골에서 사는 것은 환상적이다!

- ① blanc [blā] 흰색 ② siècle [sjɛkl] 세기 ③ second [s(ə)gõ] 제2의
④ piscine [pisin] 수영장 ⑤ morceau [mɔʁso] 조각

정답해설: 철자 'c'는 모음 'a', 'o', 'u' 앞에서 [k]로 발음되므로 'campagne'의 밑줄 친 'c'는 [k]로 발음된다. 답지 ① blanc의 'c'는 발음 나지 않으며, 답지 ③ 'second'의 'c'는 예외적으로 [g]로 발음된다. 따라서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②번이다. **정답 ②**

2. 글자 조합하여 낱말 찾기

Medames et m ssieurs, le train va e trer en gare de Montpellier dans dix minu es. Mer i d'avoir voyagé avec nous.

신사 숙녀 여러분, 기차는 10분 후에 몽펠리에역에 들어갑니다. 저희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- ① cent 100 ② chat 고양이 ③ cinq 다섯
④ menu 메뉴 ⑤ nuit 밤

정답해설: 제시문에서 로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철자는 각각 'messieurs'의 'e', 'entrer'의 'n', 'minutes'의 't', 'Merci'의 'c'이다. 따라서 이 철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답지 ①의 'cent'이다. **정답 ①**

[3~5] 어휘

3. 어휘-동사

A: 나는 내일 그르노블에 가.

B: 조심해. 내일 그르노블 시는 강한 눈을 겪게/경험하게 될 거야(많은 눈이 올 거야).

- ① 던지다 ② 되다 ③ 차지하다 ④ ~처럼 보이다 ⑤ 겪다, 경험하다

정답해설: 대화 맥락상 B의 빈칸에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‘겪다, 경험하다’의 뜻을 가진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. 답지 ⑤의 동사 ‘connaître’는 기상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들과 함께 사용되어 ‘~한 상태에 놓이다, 겪다, 경험하다’(예. connaître la canicule, connaître de fortes pluies)의 의미를 갖는다.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.

정답 ⑤

4. 어휘_형용사

엄마: 채소까지도 모두 먹어라. 까다롭게 굴지 말고.

아들: 아니요, 제게는 모두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.

- ① 부드러운 ② 쉬운 ③ 간단한 ④ 새로운 ⑤ 힘든/까다로운

정답해설: 대화문은 엄마와 아들이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로, 대화 맥락상 엄마의 대사 빈칸에는 ‘까다로운’(= exigeant)을 뜻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고, 이에 답하는 아들의 대사 빈칸에는 ‘힘든, 어려운’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. 답지에 있는 형용사들 중에서 ‘difficile’은 상황이나 일 등을 의미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‘힘든, 어려운’(예. une situation difficile)의 의미를 갖고, 사람 명사 등과 결합하여 ‘까다로운’(예. un homme difficile)의 의미를 갖는다.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형용사는 답지 ⑤번의 ‘difficile’이다.

정답 ⑤

5. 어휘_부사

○ 이 책상은 대략 길이가 2미터이다.

○ 크리스마스에 가까우니까 선물들을 사러 가자.

- ① 일찍 ② 대략/가까이 ③ 빨리
④ 충분히 ⑤ 앞에

정답해설: 맥락상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‘à peu ...’의 형태로 ‘대략’을 의미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.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맥락상 ‘être ... de Noël’의 형태로 ‘크리스마스와 (시간상으로) 가깝다’는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한다. 답지 ②의 ‘près’는 시간과 공간상으로 가까이 있음을 표현하는 부사 겸 전치사로 ‘à peu près’의 형태로 ‘대략’을 의미하고, ‘être près de Noël’의 형태로 ‘크리스마스와 (시간상으로) 가깝다’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②번의 ‘près’이다.

정답 ②

[6~21] 의사소통 기능

6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다른 것을 원하세요?
B: 아니요, 더이상 아무것도요. 얼마인가요?
A: 모두 20유로입니다.

- ① 다른 것은요 ② 그것은 당신 것인가요 ③ 어떻게 지불할까요
④ 얼마인가요 ⑤ 치수가 어떻게 되시나요

정답해설: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다른 것을 또 원하는 게 있는지 묻자 B가 '더이상 없다'고 말하면서 빈칸으로 덧붙여 말하는 것에 대해 A가 '모두 20유로'라고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. **정답 ④**

7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?
B: 나의 누이야.
A: 그녀는 학생이니?
B: 아니, 그녀는 은행에서 일해.

- ① 그녀는 어디에 사니 ② 그녀는 직업이 있니
③ 그녀는 학생이니 ④ 그녀는 왜 여기에 있니
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니

정답해설: A의 빈칸 질문에 대해 B가 우선 '아니다'라고 답하면서 은행원이라는 그녀의 구체적인 직업을 덧붙여 말하는 것으로 보아 A의 빈칸에는 누이의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. 답지 ②의 경우에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우선 '아니다'라고 말하는 B의 대답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오답이다.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. **정답 ③**

8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북부 지방에 있는 너의 동네 날씨는 어떠니?
B: 약간의 바람이 있지만 날씨가 좋아. 칸의 날씨는 어때?
A: 여기는 해가 짹짹해.

정답해설: 칸(Cannes)의 날씨를 묻고 있는 B의 질문에 대해 A가 '해가 짹짹하다'고 답하고 있으므로 칸의 날씨에 해당하는 그림은 답지 ⑤번이다. **정답 ⑤**

9. 대화 순서 배열하기

A: 우리 루이의 방 색깔을 바꿀까? c. 어떻게 생각해?
 B: 아주 좋아. a. 어떤 색깔로 할까?
 A: 회색. b. 마음에 안 드니?
 B: 별로야. 파란색이 더 좋아.

<보 기>

a. 어떤 색깔로 할까

b. 마음에 안 드니

c. 어떻게 생각해

① a - b - c

② a - c - b

③ b - c - a

④ c - a - b

⑤ c - b - a

정답해설: 대화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의 순서는 'c-a-b'가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. 정답 ④

10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과제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금요일 혹은 토요일 중에서 우리 언제 만날까?
 B: 네가 원하는 대로. 너는 무슨 요일을 선호하니?
 A: 나는 토요일.
 B: 좋아.

① 내일 봐

② 물론이지

③ 기꺼이

④ 네가 원하는 대로

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

정답해설: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금요일과 토요일 중에서 가능한 요일을 물어보는 A의 질문에 대해 B의 빈칸에는 A가 제안한 두 요일 중에서 선택권을 A에게 넘기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. 정답 ④

11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*Bon courage* 영화를 봤어.
 B: 나도 봤어, 그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
 A: ①, ③, ④, ⑤.
 B: 우리 생각이 같구나.

① 좋았어

② 약속할게

③ 좋은 영화야

④ 나쁘지 않았어

⑤ 재미있다고 생각했어.

정답해설: 대화 맥락상 A의 빈칸에는 영화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B의 질문에 대한 A의 영화평이 들어가야 한다.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답지 ②번이다. 정답 ②

12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안녕하세요, 릿 뒤풍 이름으로 방을 하나 예약했습니다.

B: 잠시만요. 3박(3일 숙박) 맞지요?

A: 네, 10월 3일에서 6일까지입니다.

- ① 그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② 오늘이 4일인가요
- ③ 이 자리는 빈자리인가요 ④ 3박 맞지요
- ⑤ 그것은 몇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

정답해설: 대화문은 방을 하나 예약했다는 A의 말에 대해 B가 빈칸으로 질문하고, 이 질문에 대해 A가 10월 3일에서 6일까지 3박 4일에 해당하는 예약 날짜를 재확인하는 상황이다. 맥락상 B의 빈칸에는 3박(3일 숙박)을 확인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. **정답 ④**

13. 글의 내용 이해하기

에펠탑 전망을 가진 올해 새로 수리한 80 m² 넓이의 아파트임. 지하철에서 너무 멀지 않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함. 승강기가 있는 5층에 위치함. 아파트의 모든 공간(부엌, 거실, 방 2개 그리고 욕실)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① 승강기가 있다.
- ② 4년 전에 수리를 했다.
- ③ Paris 외곽에 위치한다.
- ④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.
- ⑤ 숙박객이 이용할 수 없는 방이 하나 있다.

정답해설: 게시문은 Emma가 숙박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자신의 집 소개 글로서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답지 ①의 ‘승강기가 있다’이다. **정답 ①**

14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오늘 저녁에 외출할까?

아니, ①, ③, ④, ⑤.

왜?

바빠.

- ① 미안해 ② 내 것이 아니야 ③ 가능하지 않아
- ④ 할 수 없어 ⑤ 그것은 불가능해

정답해설: 대화문은 ‘저녁에 같이 외출하자’고 제안하는 왼쪽 친구의 말에 대해 오른쪽 친구가 ‘바빠서 안 된다’고 답하는 상황이다. 따라서 B의 빈칸에는 거절이나 불가능을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답지

②번이다.

정답 ②

15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
B: ①, ②, ③, ⑤.
A: 다음번에는 정시에 도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- ① 괜찮습니다 ② 그럴 수도 있지요 ③ 괜찮습니다
④ 선물용입니다 ⑤ 괜찮습니다

정답해설: 대화 맥락상 B의 빈칸에는 약속 시간에 늦은 A가 사과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 B가 ‘괜찮다’는 의미로 A를 안심시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. 따라서 B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답지 ④번이다. 정답 ④

16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지금 우리 형 강아지를 돌보고 있어.
B: 아 그래! 강아지는 언제?
A: 작고 아주 얇전해.

- ① 강아지가 누구를 찾아 ② 강아지는 어떻게 지내
③ 강아지는 언제 ④ 무슨 일이야
⑤ 강아지는 뭐해

정답해설: 빈칸 B의 질문에 A가 강아지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강아지의 상태에 대해 묻는 표현인 ③번이다. 정답 ③

17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부인, 식사 마치셨나요?
B: 네, 정말 맛있었어요. 계산서 좀 주세요.
A: 곧 가져다드리겠습니다.

- ① 음료가 없으신가요 ② 당신이 저를 담당하시나요
③ 디저트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④ 식사는 무엇이었나요
⑤ 식사 마치셨나요

정답해설: 종업원의 빈칸 질문에 여자 손님이 ‘네’라고 대답한 후 식사에 만족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선택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⑤번이다.

정답 ⑤

18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너 아프니?
 B: 몸이 좋지 않아.
 A: 무슨 일이야?
 B: 감기에 걸린 것 같아.

- ① 나는 컨디션 좋아 ②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
 ③ 나는 건강이 좋아 ④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
 ⑤ 몸이 좋지 않아

정답해설: 아픈지 물어보는 A의 질문에 대해 B가 빈칸으로 답하고, 이에 대해 A가 다시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. **정답 ⑤**

19. 게시문의 내용 이해하기

우리 동네를 청소합시다!

동네 주민 여러분들께,
 평화(Paix) 광장에 모입니다.
 2023년 9월 24일
 9시부터 12시까지

- ① 신청 기한 ② 집결 장소 ③ 참가 대상 ④ 행사 내용 ⑤ 행사 일시

정답해설: 게시문에 신청 기한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답지 ①번이 정답이다. **정답 ①**

20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선생님께 드릴 서류가 있어. 너 나랑 같이 갈래?
 B: 그래, _____ a, d _____.

<보 기>

-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a. 내가 너를 따라갈게 | b. 네가 틀렸어 |
| c. 내가 원망스러워 | d. 마침 잘 됐다 |

- ① a, b ② a, d ③ b, c ④ b, d ⑤ c, d

정답해설: 대화 맥락상 빈칸에는 B가 같이 동행하겠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. <보기>의 표현들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a와 d이다.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. **정답 ②**

21. 대화 내용 이해하기

A: 그가 내 초대를 받아 줄까?
 B: 응, ①, ②, ④, ⑤ !
 A: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
 B: 그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.

- ① 확실해 ② 틀림없어 ③ 나도 아니야
 ④ 걱정하지마 ⑤ 당연하지

정답해설: 그가 초대에 응할지를 묻는 A의 질문에 대해 B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므로 빈칸에는 초대에 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③번이다. **정답 ③**

[22~26] 문화

22. 건축 문화: 개선문(l'Arc de triomphe)

- 이것은 파리의 샤를 드골 광장(예전 에투알 광장)에 위치한다.
- 이것은 아치형의 커다란 문이다.
- 나폴레옹 1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.

- ① 팡테옹 ② 오르세 미술관 ③ 개선문
 ④ 몽생미셀 ⑤ 베르사유 궁전

정답해설: 제시문은 나폴레옹 1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샤를 드골 광장에 세워진 아치 모양의 거대한 개선문(Arc de triomphe)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.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. **정답 ③**

23. 생활 문화: 파리 박물관 패스(Paris Museum Pass)

만약 여러분이 단기간에 파리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다면 ‘파리 뮤지엄 패스’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. 이것은 수도와 일드프랑스 지역의 50곳 이상의 박물관 및 기념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2일권은 55유로, 4일권은 75유로, 6일권은 85유로입니다. 여러분이 (방문하는) 장소의 입구에서 이것을 제시하면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.

- ① Paris에서만 사용 가능하다.
 ② 연령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.
 ③ 방문 장소의 입구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.
 ④ Paris의 박물관을 방문하려면 누구나 구입해야 한다.
 ⑤ 단기간에 Paris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때 유용하다.

정답해설: 제시문은 단기간에 파리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‘파리 박물관 패

스'에 관한 것으로, 대화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'⑤ 단기간에 Paris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때 유용하다.'이다. 정답 ⑤

24. 생활 문화: 책 나무(arbre à livres)

A: '책 나무(arbre à livres)' 그게 뭐야?
B: 길거리의 작은 도서관이야. 도시에 여러 개가 있어. 사람들이 책을 가져가고 자유롭게 반납해. 또한, 다른 책들을 가져다 둘 수도 있어,
A: 돈을 내야 하는 거야?
B: 아니, 무료야. 꼭 한 가지, 비가 올 때는 문을 잘 닫아야 해!

<보 기>

- a. 새 책들만 있다.
- b. 그것을 사용하는 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.
- c. 비가 올 때는 문을 잘 닫아야 한다.
- d. 도시의 모든 거리에 있다.

- ① a, b ② a, c ③ b, c ④ b, d ⑤ c, d

정답해설: 대화문은 도시의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 책 나무(arbre à livres)를 소개하고 있다. 대화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 'b. 이것을 사용하는 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.'와 'c. 비가 오면 문을 꼭 닫아야 한다.'로 구성된 ③번이다. 정답 ③

25. 음식 문화: 부야베스(bouillabaisse)

A: 우리 부야베스(bouillabaisse) 먹으러 갈까?
B: 그거 고기 요리야, 생선 요리야?
A: 토마토와 감자를 곁들인 생선 수프야. 내 생각에는 마르세유(Marseille)의 Vieux-Port의 요리법이 가장 좋아.
B: 생선으로는 뭐가 들어가니?
A: 예전에는 어부들이 자신들의 생선을 모두 팔지 못했을 때, 이 요리를 만드는데 남은 생선들을 사용했어. 오늘날에는 좋은 생선들로 그것을 만들어.

- ① 그것은 채소가 들어가지 않는 수프이다.
- ② 이 요리는 생선을 늘 포함하고 있다.
- ③ Vieux-Port는 이 요리의 다른 이름이다.
- ④ 부야베스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들어간다.
- ⑤ 요리의 남은 재료로 부야베스를 만든다.

정답해설: 대화문은 생선 수프인 부야베스(bouillabaisse)에 관한 것으로, 제시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②번이다. 정답 ②

26. 지리 문화: 모나코(Monaco)

모나코는 도시이자 유럽의 국가이다. 이 국가는 지중해 쪽으로 향해 있다. 그것은 니스 동쪽 약 20킬로 떨어진 지점에 있다. 거기에서는 프랑스어를 말하고 1970년부터 OIF에 속해 있다. 매년 자동차 경주인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린다.

<보 기>

- a. 매년 자동차 경주가 열린다.
- b. 바다에 면한 도시 국가이다.
- c. Nice에서 서쪽으로 약 20 km 떨어져 있다.
- d. 1970년부터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.

- ① a, b ② a, c ③ b, c ④ b, d ⑤ c, d

정답해설: 제시문은 서유럽 국가로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는 도시 국가인 모나코(Monaco)를 소개하고 있다. 대화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 ‘a. 매년 자동차 경주가 열린다.’와 ‘b. 바다에 면한 도시 국가이다.’로 구성된 ①번이다.

정답 ①

[27~30] 문법

27. 강세형 인칭대명사 ‘eux’

A: 어제 공원에서 풀과 마리를 봤어,

B: 정말? 정말 개네들이었어?

A: 응, 물론이지.

- ① eux(그들) ② ils(그들이) ③ les(그들을) ④ leur(그들에게) ⑤ ceux(이들)

정답해설: 해당 문항은 'être' 동사의 속사로 사용되는 강세형 인칭대명사의 용법을 묻고 있다. 강세형 인칭대명사는 주어나 목적보어를 강조하거나 전치사의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. 제시문 B의 'être' 동사의 속사로 'ils(폴과 마리)'의 강세형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B의 빈칸에는 강세형 인칭대명사 'eux'가 들어가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. **정답 ①**

28. 복합과거 형태

- ① 레오는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다.
- ② 레오는 버스에 가방을 실었다.
- ③ 레오는 수요일 저녁에 집으로 되돌아갔다.
- ④ 레오는 산에서 휴가를 보냈다.
- ⑤ 레오는 4층에서 의자들을 내렸다.

정답해설: 해당 문항은 복합과거 형태의 동사에 따른 조동사의 선택을 묻고 있다. 복

합과거 형태는 ‘avoir/être + 과거분사’이므로 동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조동사가 달라진다. 답지 ①의 동사 ‘sortir’는 ‘des pommes’를 직접목적보어로 가지는 타동사로 ‘꺼내다’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복합시제에서 ‘avoir’를 조동사로 사용한다.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. 답지 ②의 동사 ‘monter’는 이 문장에서 ‘올리다’라는 의미로 ‘sa valise’를 직접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조동사 ‘avoir’와 결합한다.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. 답지 ③은 동사 ‘retourner’가 ‘돌아가다’라는 자동사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복합시제에 ‘être’ 동사를 조동사로 사용해야 하지만 조동사 ‘avoir’를 사용했으므로 옳지 않은 표현이다. 답지 ④의 동사 ‘passer’는 직접목적보어로 시간 표현을 취하면 타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. 따라서 ‘avoir’를 조동사로 사용했으므로 옳은 표현이다. 답지 ⑤의 동사 ‘descendre’는 자동사와 타동사 용법을 둘 다 가진다. 해당 문장에서 동사 ‘descendre’의 직접목적보어로 ‘les chaises’가 사용되었으므로 타동사적 용법에 해당된다. 따라서 조동사 ‘avoir’와 결합한 ‘a descendu’는 옳은 표현이다.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.

정답 ③

29. 중성대명사 y

A: 그가 집을 하나 샀어?
B: 응, 예쁜 집이야. 그런데 거기에 할 일들이 많아.

① y(거기에) ② ce(그것) ③ la(그것을) ④ le(그것을) ⑤ les(그것들을)

정답해설: 해당 문항은 중성대명사의 용법을 묻고 있다. A와 B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A가 그 사람이 집을 샀는지 묻고, 이에 대해 B가 예쁜 집이기는 한데 그 집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답하는 상황이다. 맥락상 B의 빈칸에는 장소의 상황보어인 ‘거기에(그 집에)’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한다. 이 문장을 대명사가 사용되기 이전의 문장으로 되돌려보면, “Mais il a beaucoup de travaux à faire dans cette maison.”이 된다. 따라서 장소의 상황보어인 “dans cette maison”을 대신하는 대명사는 중성대명사인 ‘y’이고 대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므로 “Mais il a beaucoup de travaux à y faire.”의 문장이 만들어진다.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답지 ①의 ‘y’이다.

정답 ①

30. 동사 구문

A: 일요일 약속을 위해서 과자들 좀 챙겨라.
B: 알았어. 너는 마실 것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.

<보 기>

a. 먹어라

b. 숙고해

c. 잊지 마

① b

② c

③ a, b

④ a, c

⑤ a, b, c

정답해설: 대화는 ‘일요일 약속을 위해 과자를 좀 챙기라’는 A의 말에 대해 B가 ‘알았다’고 답하면서 역으로 A에게는 ‘마실 것 가져오는 걸 잊지 말라’고 당부하는 상황이다. B의 빈칸에는 의미상으로 ‘잊어버리지 마라, 명심하라’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, 구문상으로는 [de + 동사원형] 구문을 보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. 선택지 ‘a. sers-toi’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‘식사 맛있게 먹으라’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고, 구문상으로도 뒤에 [de + 동사원형] 구문을 취할 수 없는 동사이다. 선택지 ‘b. réfléchis’는 의미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문상으로 [de + 동사원형] 구문을 취할 수 없는 동사이다. 선택지 ‘c. n’oublie pas’는 의미상으로뿐만 아니라 구문상으로도 [de + 동사원형] 구문을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.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‘c’뿐이므로 정답은 ‘c’로만 구성된 답지 ②번이다. 정답 ②